

전남도 5월 친환경농산물 곡성 '유기농 가루쌀'

식이섬유·저항전분 풍부...식단관리 탁월
신동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모델 제시
청년농 창업·정착 지원 체계 구축도 추진

전남도가 곡성 '유기농 가루쌀'을 5월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유기농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식이섬유와 저항전분 함량이 높아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준다. 글루텐이 없어 소화기 편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당뇨 예방과 건강한 식단 관리에 효과적이다.

곡성에서 유기농 가루쌀을 재배하는 신동춘(63) 대표는 도시 직장생활을 마치고 2002년 고향으로 귀농해 친환경농업 길을 걸은 청년농업인 출신이다.

신 대표는 귀농 초기 일반적인 재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부터 친환경농업과 접촉해 밀



전남도가 일반 쌀보다 식이섬유와 저항전분 함량이 높아 장 건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주는 곡성 '유기농 가루쌀'을 5월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사진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유기농 쌀가루를 재배하는 신동춘(왼쪽) 대표. <전남도 제공>

재배 불모지인 곡성에서 벼를 심던 눈에 이모작으로 밀 50ha를 재배했으며 2018년에는 밀을 수확한 논에 처음으로 가루쌀 1ha 재배에 도전했다.

신 대표는 기존 동계작물은 벼 재배 시기와 겹쳐 충분한 생육이 어렵고 농약 사용 가능성도 높지만 가루쌀은 6월 이상이 가능해 친환경 재배

에 적합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가루쌀은 첫 재배 당시 1ha 규모에서 시작해 현재 76.7ha까지 확대

돼 연간 약 180t을 생산하고 있다. 수확량도 10a(300평)당 540kg 수준에서 580kg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반 쌀 2천800원(kg당)보다 50% 비싼 4천200원에 이른다.

또한 일반 쌀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기농 이유식, 전통주 등 가공식품 원료로 150t을 공급하고 있으며 '쌀이 곳간'이라는 쌀방 카페까지 직접 운영해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신동춘 대표는 "친환경농업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젊은 농업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청년농업인이 가루쌀 생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생산부터 판로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업은 단순 생산에서 가공·채널·외식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며 "전남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평동농협, 농작업 대행사업 모내기 시연회 개최

올해 총 200여 농가 75ha 대상
병해충 예방·고품질 쌀 생산 예정

광주평동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고령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에 본격 나섰다.

광주평동농협은 20일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용곡동 일대 논에서 '농작업 대행사업 첫 모내기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광주지역본부장과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평동농협 임직원, 조합원, 지역 농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현장에서는 이양기를 활용한 기계 모내기 작업 시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농작업 대행 시스템 운영 방식과 영농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계화 작업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광주평동농협은 올해 총 200여 농가, 75ha 규모의 논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모판 운반부터 이앙 작업까지 영농 전반을

지원해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이 신청한 쉼터장의 모에 대해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하고 권역별 영농 일정에 맞춰 적기 모내기를 추진해 병해충 예방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평동농협은 최근 농촌 지역의 고령화 심화와 인력난으로 인해 농작업 대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농업 기계화 확대와 스마트 농업 도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시연회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의 기계화와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해 조합원들의 영농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농협전남본부, 친환경 자원순환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3개 농축협 참여 농업 활성화 도모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20일 "지난 18일 전남본부에서 2026년 친환경 자원순환 전남협

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도내 13개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해 2025년 사업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또 협의회원들은 품질 경쟁력 강

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확대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양영모 친환경 자원순환 전남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고품질 퇴비 생산에 협의회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전남농기원 '비파알' 기능성 소재화 추진

'우르솔릭산' 고함량 품종 선발
재배·가공·산업화 특화작목 육성

전남도농업기술원이 항산화·항염증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비파알(사진)을 활용,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에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재배기술 확립과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액티브에이징 시장 확대에 따라 천연물 기반 고기능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성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원료 산업 경쟁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비파알의 안정적 생산과 산업화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 비파 재배 규모는 88ha로 144 농가에서 연간 150t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인 '국내 특용자원 및 지역특화작목 활용 기능성 소재개발'에 참여해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강원농업기술원과 서울대, 고려대, 동의대 등 대학, 네오뉴트라와 콜마BNH 등 산업체가 공동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



며 총사업비는 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에는 4억5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연구는 비파 품종별 잎 생산성 구명, 시비 조건에 따른 기능성 성분 변화 분석, 적정 수확량 설정, 농가 실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항산화·항염증·항비만 효과가 있는 지표물질 '우르솔릭산(Ursolic acid)'을 중심으로 기능성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은 28a 규모의 비파알 전용 생산 시범포장을 조성하고 우르솔릭산 함량이 높은 국내 육성 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량과 기능성 성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비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 실증을 거쳐 재배 단지 조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덕수 과수연구소장은 "비파알의 기능성 소재화를 통해 생산·가공·산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